

## 와시의 용도-장지문, 서간, 문화유산의 보존과 수리 등

미노와시는 옛날부터 내구성이 좋고 불순물이 없는 아름다움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노와시가 수백 년이 넘도록 유지해온 튼튼함과 아름다움은 양질의 천연 소재와 인피 섬유를 잘 엮히게 만드는 기법에서 생겨났습니다. 현존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는 미노 지방의 종이로 702년의 호적에 사용되었습니다. 8 세기가 되자 일본에서는 불교가 퍼져 미노와시가 경전의 필사나 조정의 기록에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년)가 되면서 미노와시는 도쿠가와 쇼군이 지폐의 재료로서 사용했던 외에도, 장지문이나 기후초친(기후현에서 만드는 전통 등롱) 등 관리들을 위한 품질이 좋은 물건들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미노와시의 수요가 확대됨과 더불어 미노 지방의 와시 상인이 크게 번창했습니다.

미노와시는 지금도 등롱이나 장지문에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교토 영빈관에서는 장지문과 조명기구에 사용하기 위해 5,000장의 혼미노시를 발주했습니다. 또한 혼미노시는 미술품이나 서적, 자료의 보존용으로 전 세계의 박물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미노시는 가볍고 튼튼하며, 시간이 지나도 누렇게 바래지 않고, 게다가 산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이나 수리 대상인 유물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는 선수에게 증정하는 상장 용지에도 미노와시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회용으로 발주한 17,600장의 와시는 미노의 와시 장인들이 그야말로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만들었습니다.